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교권 보호, 일관된 매뉴얼 적용이 우선이다

최근 충청남도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여교사가 수업하는데 한 남학생이 교단까지 나와 드러누워 휴대전화로 선생님을 촬영하는 영상이 뉴스로 전해져 '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수업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선생님은 학생의 행동을 제지했음에도, 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마나 교권이 추락했으면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어느 학교나 적용되는 규칙이다. 해당 학교는 아침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데, 해당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자리를 이탈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 학생은 선생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까지 받은 상태였다. 선생님은 추가 지도에 따른 분위기 경직과 학생의 반발 등을 고민하고 '애써 무시하며' 수업을 진행한 듯하다. 게다가 해당 교사는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라, 학생이 이를 알고 문제를 키우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위 사안에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교권보호위원회조차 반대하고, 학교는 담임교사와 학생 간 친밀감이

강하다 보니, 장난이 다소 심해졌을 뿐이라며 무마에 급급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문제를 덮고 벌일 아니라는 듯이 사안을 넘겨버리면, 선생님들은 다시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에 개별적으로 노출될 뿐이다. 결국, 힘들어지는 건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2021년에 437건으로 2011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 전국 교원 8600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61%가 하루 한 번꼴로 수업 방해나 욕설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가 올해만 7000명에 이른다.

이번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사와 학교, 교육 당국의 일관한 대응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참담하

다. 학교는 '교권 침해'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교사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해 큰 문제 아니라고 조용히 넘어가거나, 교사 개인의 지도 역량에만 맡겨선 안 된다. 선생님의 주의와 지도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나면, 추후 생활 및 학습지도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이 학교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 매뉴얼이 문구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이 수업권 침해 시 지도 방법을 제도화해 '매뉴얼'이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교권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법이 변해선 안 된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매뉴얼 적용'이 제도화돼야,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비로소 논할 수가 있다.

사설

제주감귤 먹칠하는 불량품 유통 막아야

올해는 비상품 감귤을 몰래 내다 파는 행위가 사라질까. 극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량감귤을 유통시키는 악랄한 상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 극조생 감귤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면 비상품 유통 단속과의 숨바꼭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에서도 상품성 있는 극조생 감귤 출하를 위한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올해산 노지감귤과 만감류의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부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 운영에 들어갔다.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은 공무원 29명을 포함 5개반 44명으로 꾸렸다. 이들은 제주도 관내 선과장 136개소, 택배취급소 118개소, 제주항, 한림항, 재래시장, 감귤직매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에는 한림항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배 추산지에 드론을 활용해 수확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다. 후속 등 비상품 유통행위를 실시간 감시해 불량감귤 유통에 대한 선제적인 차단에 나선다.

아찔한 비상품 감귤 유통만은 막아야 한다. 비상품 유통행위는 감귤 제값받기에 찬물을 끼얹는 등 제주감귤의 이미지만 흐려놓을 뿐이다. 상품을 유통해도 모자랄 판에 불량품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는가. 특히 극조생 감귤을 어떤 품질로 출하하느냐에 따라 노지감귤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만큼 극조생 출하 때부터 '맛있는 감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도 달익은 감귤 등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나들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고향세 모금 압박, 차별화된 '전략' 세우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도입돼 지역경제 활로에 전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세 모금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는 만큼 홍보·모금 사용자, 답례품 등에 제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제주가 전례없는 1차산업 위기에서 지역경제 침체인 상황이라 고향세 유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부는 추석 직전인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내년 1월부터 고향세 모금을 가능케 했다. 고향세는 개인 의사에 따라 주소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서 지역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케 하는 제도다. 고향세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다. 기부액의 30%까지 답

례품을 제공토록 했다. 개인이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에 다 3만원 답례품을 받는 것이다. 지자체가 고향세 모금을 위한 홍보와 사용자, 답례품 등을 정하는데 얼마나 차별화된 전략을 선보이느냐에 따라 모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도가 고향세 시행 1년 앞인 데도 별도 전담팀 아닌 세정과로 담당을 정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안 보이는 건 매우 유감이다. 타 지자체들이 이미 추석 명절에 귀성객 대상 고향세 홍보에 나선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 고향세가 출항 도민이나 명예도민 등에 대적으로 알려져 성과를 내고,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색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주만의 고향세 정책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

편집국 25시

제주지원위의 운명



부미현 정치부 차장 bu8385@ihalla.com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를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 제주지원위가 더이상 단독위원회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 방안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도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주도와의 의견 조율 등은 없었던 것으

로 전해진다. 또 제주도는 정부가 이미 지난 7월 정부 산하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도 못 써보고 위원회 통합 수순으로 물린 셈이다. 내년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제주는 세종과 함께 강원 지역과도 지원위원회를 공유해야 할지 모른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국회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원 지역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성공시키는 등 최근 국회와 정부에 대한 절충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를 단독으로 설치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주도의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

뉴스-in

JDC, '제주포럼 2022'서 노인도서관 운영

책 관련 토크쇼 방식 진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22'에서 '노인도서관'을 운영.

이 행사는 16일 오후 1시30분 JDC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컨셉인 '도서관'에 걸맞게 책과 관련된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JDC와 제주4·3연구소의 협력사업으로 발간된 '제주4·3과 여성'(영문판)의 주인공인 허순자 할머니를 초청해 그동안의 삶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계획.

'노인도서관'은 작가 손미나와 방송인 알베르토의 진행으로 제주4·3유족 허순자 할머니, 영화감독 지혜원과의 인터뷰에 이어 온라인 이벤트로 접수된 사연 낭독과 초대가수의 신정국 공연으로 마무리될 예정. 고대로지자

갈등 현안 해결 협업 강조

○...강병삼 제주시장이 14일 주재한 주간 간부회의에서 최근 갈등현장을 방문했던 사례를 들며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강 시장은 이날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사항의 경우 부서 간 업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불편사항 해결 민원 접수 시 반드시 시민과의 피드백을 강화해 그들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3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육가공 공장 등 기피 시설을 두고 마을에서 반발하고 있는 한림읍 금악리를 찾아 공공갈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 강화를 취지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 전선희기자

부고 김민중(제주시수협 감사, 한국해양구조협회 제주지부 협회장, 경주김씨조천읍지회장, 강경자(대지연가든)의 자 김동연 상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2022년 9월 16일(금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북촌공동묘지 분향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찬흥(前 제주도교육위원장·前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 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15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동래정공 평화(향년 6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15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원주변씨 병호(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15일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서귀포시정소식 '이중섭, 그림과 편지' 공연 알림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추가모집 알림 2022년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서킷트레이닝' 수강생 모집 알림